

중국의 자유무역구 3.0시대 개막 및 한국의 협력방안

윤승현 연구위원

2016.12

YDI Report



《 요 약 》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과 발전 전개

-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 가속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략이 중국의 중요 대외전략으로 확립
- 중국 자유무역구는 세제혜택과 해관특수 감독관리 정책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성 증진을 주요목적으로 건설된 다기능 경제특구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당시 5대 목표는 금융시스템 개혁과 개방 확대, 투자영역 추가 개방, 무역통관 간소화, 기업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제도 개선, 법제 정비로 요약
- 중국정부는 2015년 제2기 자유무역시험구인 광둥, 톈진, 푸젠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들이 포함된 해안선은 중국이 추진하는 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해상실크로드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구 3.0시대 전략

- 2016년 8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에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공표
- 중국은 이번 자유무역구의 추가 확대를 통해 G20국가와 전세계를 향해 경제 개방 확대 및 무역자유화 지지, 보호무역주의 반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존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지역에 집중돼 있던 자유무역구가 중부, 서부, 동북 지역 등 내륙 성시(省市)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비춰 볼 때, 중국의 국내전략이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신규 자유무역구는 동부지역의 발전모델 창출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구의 개방 수준 제고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지방행정 모델 창출 및 지방 도시들의 시장화 수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7개 新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특징

- 동북 3성 중 비교적 발전이 덜 된 랴오닝성은 시장 구조 개혁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 이번 자유무역구 육성을 통해 동북지역 부흥과 대외개방 확대 등의 기회로 끌어올릴 계획
- 충칭시과 쓰촨성은 서부개발을 위한 시장 및 발전전략 탐색의 거점
- 허난성은 물류 시스템과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교통 중심지로 키울 예정
- 후베이성은 중부굴기와 양자강 경제벨트 조성에 힘쓸 계획
- 저장성은 저우산 자유무역항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산시성은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새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 국내전략의 조정과 한국의 협력방안

- 중국의 자유무역구 3.0시대 개막으로 한국기업들도 보세구역 운영·입점 등을 통해 세금 혜택 등 기업운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 및 산업별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확대와 아시아 경제협력의 확장 정책을 고려하여 중국 자유무역구 3.0시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
- 한국의 지자체들은 상호 협력으로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호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경쟁적이고 중복적인 산업과 사업 연계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차 례 〉

I.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의 의미와 배경	1
1. 중국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유형	3
2.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배경	8
II. 중국의 자유무역구 2.0시대 전략과 평가	11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13
2.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17
3.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19
4.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21
III. 중국의 자유무역구 3.0시대 개막	25
1. 7개 신(新)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확정 의미와 배경	27
2. 7개 신(新)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특징	29
IV. 한국의 협력방안	35
1. 시사점	37
2. 우리의 대응 방안	41
IV. 한국의 협력방안	45

I.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의 의미와 배경

1. 중국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유형

□ 중국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발전의 흐름

○ 1978년 12월 이후 중국 개혁의 시범지역과 대외개방의 창구 역할 추진

-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시작되면서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시험무대로 설립
-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은 중국의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중국은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개혁·개방 정책들과 시책들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전략을 취하였음

○ 설립연도에 따라 크게 1980년대와 2005년 그리고 2012년 이후로 구분

- 1980년 연안도시의 경제특구 설립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국가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전과학기술공업원을 설립, 1994년에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싱가포르·쑤저우(蘇州)공업단지 등이 설립·운영
- 2005년에 지정된 국가종합개혁시험구는 이전에 지정된 시험구들과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나 인구, 자원, 사회, 환경, 정부관리 능력 등의 다방면의 수요에 대한 통일조정 필요성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질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이후 금융종합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5개 금융종합시험구를 설치하고 민간경제 발전 및 대외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개혁개방의 초기인 1980년대에는 대내 경제 개혁의 요구에 의해 대외무역에 유리한 연안지역에 설립, 2000년부터는 지역 내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설립·운영

※ 중국에서 시험구(試驗區), 시범구(示範區) 등은 일정한 국가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라 볼 수 있음. 시험구는 영문으로 'test area' 또는 'test zone'으로, 시범구의 영문은 'demonstration plot' 또는 'representative area'로 번역. 본 연구에서는 시험구, 시범구 등의 용어를 논문의 전개상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시범지역'으로 통칭. 운용 상의 특징과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험구 내지 시범구 등 원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혼재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변화

- 기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개혁·개방 초기의 부족한 외자 도입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수출 구조개선이나 해외 투자 확대, 금융개혁 등의 시험장 개념으로 변모
- 중국에서 경제개방 혹은 자유무역을 위한 시범지역은 다양한 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
- 중국 경제특구의 종류 역시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내륙국경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종합개혁시험구, 신평구, 위안화혁신산업무시험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
- 종합해서 보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대외개방과 대내 경제개혁 및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유리한 지역에 설립된 시범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표 1>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설립 목적

설립연도	설립형식	설립 목적
1980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夏門)식 경제특구	개방요구로부터의 개혁
1984	연안 도시 개방	개방위주
1984	경제기술개발구 운영결정	개방을 통한 개혁촉진
1985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민삼각(閩三角)구역 연해경제개발구 계획	개방위주
1985	선전과학기술공업원 운영	개혁과 개방으로 뉴하이테크 산업발전 촉진
1988	하이난성(海南省) 경제특구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
1988	보하이(渤海) 개방지역 형성	개방위주
1988	국가고신기술구(國家高新區)설립 허가	개혁위주

설립연도	설립형식	설립 목적
1990	국무원의 푸둥신구(浦東新區) 개혁개방 선포	개혁과 개방 도시 추진
1990	중국 최초의 보세구 창설	개방위주
1992	허페이(合肥市) 등 21개 내륙 성도(省會)도시	개방 개방위주
1994	싱가포르·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건립 허가	개방으로 개혁촉진
1996	선전염전 보세구, 주하이 보세구 설립	개방위주
2000	수출가공구 설립허가	개방위주
2003	중국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CEPA 체결	개방으로 발전촉진
2004	보세구와 항구의 항구지역 연동실시	개방위주
2005	상하이 푸둥신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을 위한 국가종합개혁시험구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전면적 개방·개발)
2005	상하이 양산(洋山)보세항구 설립 허가	개방위주
2006	빈하이신구 개발개방 허가(국가종합개혁시험구)	국가종합개혁시험구 (전면적 개방·개발)
2007	종합보세구 정식 설립	개혁으로 개방촉진
2007	톈진(天津) 중국·싱가포르 생태도시프로젝트 서명	개방, 개혁으로 신창출 (생태환경보호)
2007	충칭(重慶), 청두(成都) 도농 균형을 위한 지역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07	우한도시권역(武漢城市圈)과 창주탄도시권역(長株潭城市群)의 자원절약 및 친환경 사회 건설 지역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09	선전 신평구 지역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10	선양(瀋陽) 경제구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10	산시(山西) 자원형 경제종합구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11	이우(義烏) 국제무역종합개혁구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국제무역)
2011	샤먼 양안교류합작종합개혁구 허가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12	저장성원저우시(浙江省温州市), 광둥성주강(廣東省珠江) 삼각주, 푸젠성취안저우시(福建省泉州市) 등 3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 허가	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3		국가종합개혁시험구
2013	장수난통(江蘇南通) 연해발전 지역	각구종합개혁시험구
2013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 창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허가	자유무역시험구
2013	윈난광시장족(雲南省廣西壯族自治區) 자치구 국경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4	산둥성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자산관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허가	금융종합개혁시험구
2015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시험구 허가	자유무역시험구
2016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산시(陝西), 충칭(重慶)자유무역시험구 허가	자유무역시험구

참조 : 김명아 외, 2014,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참조 재정리.

<표 2>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종류

종류	특징 및 지역
경제특구	중국은 1979년 후반부터 외자투자 유치를 위해 광둥성의 선전·주하이·산터우, 푸젠성의 샤먼, 하이난 경제특구, 2010년 신장 카스(喀什) 경제특구를 설치함
연해 개방도시	1984년부터 대외개방을 위해 다롄, 진황도, 톈진, 옌타이, 칭다오, 연운항, 난통, 상하이, 닝보, 윈저우, 푸저우, 광저우, 전장, 베이하이의 14개 연해 도시를 개방함
내륙 국경 개방도시	북한, 러시아, 몽고, 우주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와 인접한 단둥, 훈춘, 내몽고, 핑샹(憑祥), 동싱(動興)지역이 국경 개방도시로 운영 중
경제기술개발구	중국 대외 개방지역의 한 형태로 개방지역에 작은 지역을 나눠 역량을 집중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함. 2013년 8월 기준 경제기술개발구는 192개에 달하며, 강소성이 23개, 절강성 17개, 산둥성 13개로 많은 경제기술개발구가 있음
보세구	수출입수속 없이 외국물품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수출세금환급정책이 있는 지역으로 1990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서 시작됨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으로 2013년 4월 기준 64개 수출가공구가 운영 중임
종합보세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국제공업원구지역의 세금징수와 외환관리정책을 취합한 지역으로, 중국에서 개방 정책이 우대적이며 통관수속이 간이화된 특수 개방지역임. 2009년 첫 번째 종합보세구로 상하이 종합보세구가 설립됨
국가첨단기술산업 개발구	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개발 조성, 과학기술부에서 직속관리하고 있음. 2012년 말 기준 중국 내 총 106곳에서 운영 중임
해외경제무역 합작구	중국 정부가 국외 지역에 현지 정부와 합작 형태로 건설하는 산업 클러스터 지역을 의미함. 2012년 7월 기준 13개 국가에서 총 16개의 합작구가 건설 중이며, 이 중 9개는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음
종합개혁시험구	전문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기준 4개의 종합개혁시험구가 설립됨
신탁구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시험구의 목적으로 설립, 2013년 기준 16곳(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포함)이 운영 중
위안화 혁신업무시험구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시범지역 내의 대외 자본거래 허용을 확대하여 시범지역과 중국 본토간 위안화 자본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개 지역에서 개인의 경상항목 계정하에서의 위안화 결제, 위안화 양방향 대출 등 위안화 혁신업무 시험구를 설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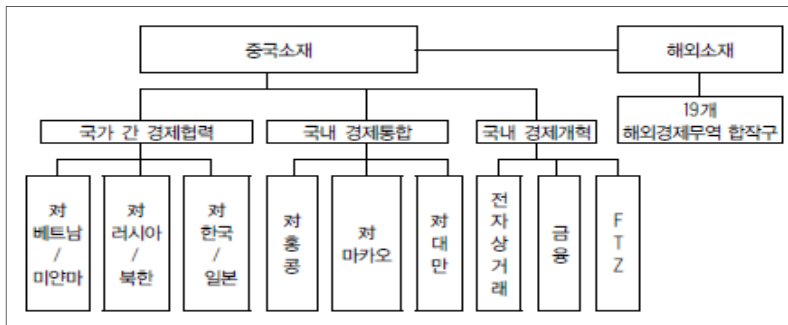
자료 : 박찬욱, 2015,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재정리

□ 中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소재지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

○ 소재지가 중국인가 해외인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

- 중국 소재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도 그 목적이 국가 간 경제협력인가, 국내 경제통합인가, 혹은 국내 경제개혁인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첫 번째 유형,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분류
 - ASEAN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는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廣西省)과 윈난성(雲南省)의 국경경제협력지역
 -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琿春)과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
- 두 번째 유형,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분류
 -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둥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
- 세 번째 유형,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로 분류
- 자유무역구는 주로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¹⁾

[그림 1]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분류



자료 : 김명아 외(2014),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1)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가 포함되고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는 지역으로 잠재력이 높은 한·중 자유무역구가 포함됨. 아울러 의미상으로는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영역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2.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배경

□ 자유무역구 설립은 중국의 2차 개혁·개방과 동일한 선상에서 추진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은 중국이 추진 중인 2차 개혁·개방과 동일한 흐름상에서 추진되는 조치
 - 정부의 기능 전환과 관리모델 혁신의 모색, 무역 및 투자 간소화 촉진, 새로운 경험 축적 등에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당시 5대 목표는 금융시스템 개혁과 개방 확대, 투자영역 추가 개방, 무역통관 간소화, 기업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제도 개선, 법제 정비로 요약
 - 중국 정부는 2015년 제2기 자유무역시험구인 광둥, 텐진, 푸젠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들이 포함된 해안선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and One Road) 프로젝트의 해상 실크로드와 상당부분 일치

<표 3> 중국의 1,2차 개혁·개방

	1차 개혁·개방	2차 개혁·개방
주도세력	덩샤오핑 등 개혁 집권세력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대표적 조치	1979년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와 푸젠성 샤먼 등 4곳을 경제특구로 지정	2013년 상하이 연해 지역 28.78km ² 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중심 수출 중점 기지로 육성 • 화교 자본을 비롯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 기업 법인세 감면(현재도 15% 유지, 기타 지역은 25%) 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자유화를 필두로 하는 금융 및 물류중심으로 육성 • 민간은행 설립 허용 등 국유은행 독점구조 점진적 해체 • 5년간 소득세 분납 등 조세혜택 • 법인세 우대는 반발을 우려해 포함하지 않음
목표	샤오강(小康)사회 진입을 위한 제조업 전초 기지 건설	제조업을 넘어서 홍콩 런던식 금융중심지 건설
직전년도 경제상황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률: 11.7% • 국내총생산(GDP): 2137억 달러 • 1인당 GDP: 223달러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률: 7.7% • 국내총생산(GDP): 8조 2322억 달러 • 1인당 GDP: 6100달러

자료 : 동아일보, 2013,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中, 제2의 개혁개방 선언, 9월 30일 참조로 재구성

[그림 2] 중국의 일대일로 지대



자료 : 아주경제, 2015, 일대일로, 중국은 무엇을 언나, 3월 30일.

주 : 중국의 일대일로 즉,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 및 지역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전략. 이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나 '13.5 계획(2016-2020)',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등 중국이 거시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직결되어 있음.

- 제2기 자유무역시험구는 제1기 상하이의 성공 사례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지역경제 통합 전략의 한 축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주변지역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 다른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자협정(TPP)이 가져올 세계 교역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석, 결국 새로운 글로벌 무역 경쟁 구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여기에 위안화 국제화와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승부수도 담고 있음
 - 상기 4대 자유무역구 전략은 '3+1 방안'으로 불리기도 하며, 중국 자유무역구 2.0시대를 본격 개막하게 되었음

※ 일본 산케이신문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선전 등 4개 도시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 제조업 기반의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자유무역구는 그에 필적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평가. 따라서 중국의 자유무역구 도입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 선진 금융의 날개를 달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경제 전반의 개혁과도 맞물려 있음. 금융 부문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조업 구조 조정을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임. 자유무역구의 정식 명칭이 ‘중국(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라고 붙은 이유도 운용 성과에 따라 중국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함

Ⅱ. 중국의 자유무역구 2.0시대 전략과 평가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선정 배경과 발전

- 우선 대내외 자본의 평등한 권리와 외자유치 확대의 촉진,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및 무역방식 전환 촉진 목적
 - 2013년 8월 22일 국무원 허가 설립, 2013년 9월 29일 정식 운영 시작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구성하는 4개 보세구는 현재 중국내 15개 보세구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유지
 -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당시에는 와이가오차오 보세구(10km²), 와이가오창 보세물류원구(1.03km²), 푸둥공항 종합보세구(3.59km²), 양산 보세항구(14.16km²) 지역에 총 면적 28.78km²로 시작하여 현재는 진차오 개발구, 루자쭈이 금융단지, 창장 하이테크원구가 추가 지정되어 120.3km²로 기존의 4배 이상 확장되어 운영
 -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정책 시행 필요에 따라 자유무역 시험구 운용을 통해 금융개혁의 제도적 시험 조치를 시행, 이에 따라 상하이는 국제금융센터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물류와 투자·금융에 대한 최적의 금융개혁 선행시험조치가 가능²⁾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 방향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에 대한 지도사상, 종합목표, 적용범위, 시행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2조는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결과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성공적인 정책과 법제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 참조

- 상하이 시정부는 2013년 9월 29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방법」을 발표
 - 서비스업 개방 확대, 투자 관리체제 개혁 추진, 무역구조 전환, 금융서비스업 개방 확대, 감독관리 매뉴얼 구축, 투자·무역 국제규범과 행정절차의 정합성 확보, 국제화,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 발표
 - 4개 자유무역시험구 중에서도 가장 심화된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할 것을 밝히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정부직능체제 전환 가속화 방안으로 네거티브리스트 모델 개선, ▲정보공유와 서비스 플랫폼 이용 가속화, ▲법 집행 종합 체계의 완비, ▲사회 참여 역량과 시장 감독제도의 건전화, ▲기업 연도별 회계 감사보고서 공시 및 주주명부 제도 개선, ▲국가안전심사 제도화, ▲산업 예보, 정보공개, 공정경쟁, 권익보호 제도혁신, ▲과학기술 제도개혁 심화 등으로 구성

- 2013년 10월 상하이시인민정부는 ‘국민경제 산업 분류 및 코드’에 근거하여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3년)」를 제정
 - 동 조치를 통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는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최초로 도입
 - 2014년 6월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의 190개 조항에서 139개 조항으로 51개 조항이 축소
 - 2015년 5월 20일부터는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시행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4대 자유무역시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방수준도 점진적으로 제고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월 29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운영 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
 - 이는 1년 이상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제도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자 관리, 무역 간편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사후감독 등 5가지 영역과 세관 제도상의 혁신적인 개혁조치들이 중국 전역에서 확대 시행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2015.2.12),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구분결제와 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경간 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 세칙」발표
 - 상하이 FTZ “금융개혁 3.0”의 시작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전략 가속화와 투자 편리화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동 실시세칙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촉진하며, 자유무역구 실물경제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의 국제적 발전에 발판을 마련

<표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금융개혁 단계별 정책현황

구분	금융개혁 1.0		금융개혁 2.0	금융개혁 3.0
개혁시기	2013.9.18	2013.12.2	2014.5.21	2015.2.12
관련규정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건립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구분결제업무 실시세칙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역외자금조달과 국경 간 자금흐름 구분결제업무 실질심사관리 실시세칙
제정기관	국무원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주요내용	•금융제도의 창조 혁신강화	•실물경제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견지	•리스크관리를 전제로 한	•역외자금의 자율적인 조달

구분	금융개혁 1.0		금융개혁 2.0	금융개혁 3.0
개혁시기	2013.9.18	2013.12.2	2014.5.21	201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서비스 기능 강화 •리스크관리를 전제로 한 금융개혁 •이후의 선행시험 조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투자편리화 촉진 •금융 대외개방 확대 •자본항목 태환 자유화 •인민폐 국제화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제도 개혁 •리스크관리 	금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무역계좌 개설 주체 설정 •중국인민은행의 자유무역계좌 시스템 구축 •구분계좌 결제업무 실시 •무역 및 투자 편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금리 시장화 •금융회사의 진입 허용 •사전심사승인 제도 폐지 •경보지표 등 리스크 관리방식 마련 •실물경제자금 관리방식의 중간 관리 및 사후관리 •자본항목 태환 자유화 •상하이국제금융 중심 연계
공통점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금융개혁			

자료: 김명아, 2015,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참조.

2. 텐진 자유무역시험구

□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구성, 종합방안

○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건설

- 2014년 12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에 3개 지역(텐진, 푸젠, 광둥)을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로 건설하기로 계획
- 이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이 통과
- 당해 4월 20일 국무원은 광둥, 텐진, 푸젠 각각의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심화방안」 및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안전심사 시행방법」을 함께 발표하여 체계화된 정책을 수행

○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 텐진은 중국 북방지역의 가장 큰 항구도시로서, 북방경제권 컨테이너무역량의 80% 비중을 점하며, 중국 북방지역 유일의 자유무역시험구
- 이에 따라 텐진은 중국 북방지역 국제물류의 중심지로서, 일대일로 전략에서 북방지역 교두보가 되어 징진지(京津冀)국제물류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
 - ※ 징진기(京津冀)란 베이징(北京: 京)·텐진(天津: 津)·허베이(河北: 冀)의 약자를 합친 단어로써, 징진기공동발전계획요강에 따라 수도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구성

-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 텐진항보세구, 텐진공항경제구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19.9km²

- 허베이와 베이징을 잇는 징진지 수도권발전전략과 함께 상호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³⁾
- 원양·해운·금융 등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중심지로서 한·중 FTA 내지 한·중·일 FTA와 연계하여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는 금융개혁 Test-Bed로 발전전략을 수립, 텐진은 2000년대 부터 적극적으로 금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 동강보세항구는 텐진항보세구의 핵심으로서 국제거래 및 금융개혁의 요충지
 - 텐진공항경제구는 공항보세구로서, 이후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 물류업을 기본으로 다른 구역의 산업들과 상호발전을 꾀할 전망

○ 텐진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

- 징진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부 직능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며, 경험 축적을 목적
- 핵심적인 기능은 제도 개혁이며, 징진지의 상호협력적인 발전을 통하여 높은 자유화 수준의 대외개방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직무기능의 전환 가속화로 행정관리방식 혁신, 행정 관리수준 향상, ▲투자 개방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개방, ▲자유무역시험구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하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항공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다국적기업의 설립을 장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통하여 외상투자관리 방식 개혁, ▲대외투자 협력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투자 주체의 지위 확보, ▲국제무역 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무역 유형 개발, ▲국제운송서비스 기능 향상 및 운송시스템 개선, ▲통관 관리감독방식의 모델 개발 및 확립, ▲금융개혁을 통한 위안화업무 혁신 및 발전,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자은행 내지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장려, ▲물류업의 발전 수준 향상, ▲건전한 금융 리스크방지 시스템 확립, ▲항만 기능 강화, ▲산업 고도화,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풀 구축 등
- 이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투명성 확보, 행정관리 서비스 환경 최적화, 조세정책의 개선, 신용평가시스템구축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⁴⁾

3) KOTRA, 2015, 텐진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globalwindow-경제·무역동향(<http://www.globalwindow.org>).

4) 텐진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tjftz.gov.cn/html/cntjzmyqn/portal/index/index.htm>)

3.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발전 전략과 목표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 중앙정치국 회의(2015년 3월 24일 개최)에서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종합 방안」 통과
- 푸젠은 해상교통 요충지로서 양안(중국 대륙-대만) 경제협력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 전략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핑탄지역, 샤먼지역, 푸저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 118.04km²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목표와 발전 전략

-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전국화, 세계화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선행 개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 이에 경영환경의 국제화·시장화·법치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자유무역 시험구를 양안경제협력시험구로 발전시키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 기능하게 하려고 함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목표

- 정부직능 전환 가속화, 기능교육과 제도혁신을 통하여 개방과 개혁을 심화하고 지속하는 발전목표를 수립
-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혁을 통한 정부직능 전환, ▲외상 투자관리 방식 개혁과 대외투자 촉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관리 시스템 개혁 추진, ▲새로운 무역 방식 도입과 향운 서비스업 기능 제고, 통관 시스템 혁신을 통한 무역발전방식 전환 추진, ▲푸젠·타이완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식 탐색과, 對타이완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對타이완 상품 무역 자유화 추진, 양안간 자연인이동 편리화 촉진을 통한 타이완과의 투자무역자유화 선도, ▲금융업의 대외개방 확대, 금융 서비스 기능 강화, 양안 금융협력 선행시험조치 추진을 통한 금융 개방개혁, ▲건축, 도시계획,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무역자유화와 함께 향운 자유화를 추진하고 대만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관광섬을 건설함으로써 핑탄 지역의 개방과 개발 우위를 활용, ▲보장조치로서 조직화되고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3년간 시행되는 시험·시범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조세 정책을 개편,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의 시범업무와 그에 대한 평가 체계를 확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⁵⁾

5)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fjftz.gov.cn/>) 참조

4.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발전 전략과 목표

○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략적 지위

- 홍콩·마카오와의 자유로운 협력과 인적 교류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통합 촉진 목적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해 온 지역으로서 중-홍콩CEPA⁶⁾ 내지 중-마카오CEPA⁷⁾에서도 광둥성 선행시험조치를 시행
- 광둥성은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 요강(2008~2020)」에 따라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바 있으며, CEPA 보충협정을 통한 광둥성 선행시험조치 경험도 풍부한 지역
- 총면적은 116.2km²로서, 광저우 난샤신구, 선전 첸하이서커우, 주하이 형친신구로 구성
 - 난샤신구는 CEPA에서 협의한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그 법적 근거는 CEPA 후속협정과 「광저우 난샤신구 조례」
 - 형친신구의 경우에는 「주하이 경제특구 형친신구 조례」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 문제 전문팀을 조직하여 홍콩과 마카오의 법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형친신구에 경제무역, 노동 및 취업, 식품안전 그리고 생산품의 품질 관련 법제 활용방안 수립하도록 하였음

○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 홍콩·마카오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온라인금융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형 무역방식 개발, 금융개방·서비스개혁구 건설, 정부직능 전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CEPA 및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관리방식 선진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본적으로 CEPA를 통한 자유화 조치를 기초로 그 개방수준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산업단지 내지 한-중 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선행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7) The Mainland and Macau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목표

- 2015년 4월 8일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과 통합을 강조
- 광둥·홍콩·마카오 세 지역 간 해운·항공 연계를 통한 균형 있는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플랫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가공무역 구조전환을 통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경제권과 내륙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범주삼각지구를 종합 서비스지구로 발전시켜, 3~5년 정도의 개혁적인 시험 조치를 통하여 국제화와 시장화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여기에 금융, 교통·물류, 과학기술, 전문분야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고, 표준·인증제도 통일, 관리감독 체계 협력·강화를 통한 광둥·홍콩·마카오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금융개혁을 선도하고 홍콩·마카오와의 추가 개방을 추진
- 무역 통상 분야를 살펴보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책 개선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도입, 투자 관련 서류의 자동심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외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무역업무 행정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 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 및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국 광둥성 정부는 2015년 7월 20일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8대 분야 62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 ▲단일 창구 개설,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기준 투자·무역 체계 구축,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행정심사제도·상사등기제도 개혁 및 신용기제 확립, ▲일대일로 관련 국가(지역)와의 물류체계 개선 등 수준 높은 개방 플랫폼 건설, ▲신형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시범구로 조성, ▲금융·전자상거래 등 국제거래 기능 집결, ▲항공·항운의 국제 서비스 기능 제고, ▲새로운 외환관리제 및 위안화국제화 시범구 등 금융개혁, ▲세관 감독 시스템 개혁 및 조세 정책 개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5>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지역별 구성과 주요기능

지역	구역	면적(km ²)	중점 기능
상하이	종합보세구 (綜合保稅區)	와이가오차오보세구 (外高橋保稅區)	- 자유무역, 수출가공, 물류창고, 보세 상품전시무역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원구 (外高橋保稅物流園區)	- 물류창고, 국제배송, 환적
		양산보세항구	- 보세가공, 보세물류, 국제배송, 환적 등 해운
		푸둥공항종합보세구 (浦東機場綜合保稅區)	- 보세, 보세물류, 수출가공 등 항공운송
	루자쭈이금융단지(陸家嘴金融片區)	34.26	- 금융, 무역, 3차 산업 중심
	진차오개발구(金橋開發片區)	20.48	- 의약, 전자, 정보, 바이오 등 하이테크 벤처산업
	창장하이테크원구(長江高科技片區)	37.20	- 선진제조업 밀집
톈진	빈하이신구 중심상업단지 (濱海新區中心商務片區)	46.80	- 팩토링, 리스 등 금융혁신 중심, 현대 서비스업
	톈진항동장단지(天津港東疆片區)	30.00	- 금융리스, 항운금융, 국제항운, 현대서비스업
	톈진공항단지(天津機場片區)	43.10	-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 전자시스템설계업, 항공물류업
푸젠	핑탄단지(平潭片區)	43.00	- 對대만 해상무역, 창조문화산업 및 여행·레저 산업
	샤먼단지(廈門片區)	43.78	- 금융, 전자상거래, BT, 타이완 자유 무역항과 연계
	푸저우단지(福州片區)	31.26	- 전자정보, 방직의류, 금속제련, 타이완 첨단 신기술산업 이전
광둥	광저우난사신구단지 (廣州南沙新區片區)	60.0	- 운송물류, 특화금융(niche financial), 국제상무, 첨단제조업 등 산업 발전
	선전첸하이서커우단지 (深圳前海蛇口片區)	28.20	- 첨단금융, 역외위안화업무,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 발전
	주하이형친신구단지 (珠海橫琴新區片區)	28.00	-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엔지니어링 등 산업 발전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2015, 중국 4대 자유무역시험구 추진과 시사점; 김명아, 2015,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상하이, 톈진, 푸젠,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 2016.09.23. 검색(<http://www.china-shftz.gov.cn/Homepage.aspx>; <http://www.china-tjftz.gov.cn/html/cntjzynyqr/portal/index/index.htm>; <http://www.china-fjftz.gov.cn/>; <http://www.china-gdftz.gov.cn/>) 내용 종합

Ⅲ. 중국의 자유무역역구 3.0시대 개막

1. 7개 新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확정 의미와 배경

□ 신자유무역시범구 증설 의미

- 2016.8.31, 항저우 G20 정상회의 전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공표
 -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遼寧省), 저장성(浙江省), 허난성(河南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慶市), 쓰촨성(四川省), 산시성(陝西省)에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공표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이 시범 탐구의 새로운 노선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음
 - 상하이, 텐진, 푸젠, 광둥 자유무역시범구 건설로 중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시범구 시범운영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자유무역구 설립 취지와 부합,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자유무역시범구의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⁸⁾
 - 2015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개 이상의 성에서 자유무역시범구 신청을 희망했고, 치열한 경쟁을 거친 뒤, 연해 2곳, 중부 2곳, 서부 3곳으로 새로운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신자유무역시범구 증설 배경

- 9월 4일, 항저우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발표
 - 중국이 이번 G20 의장국으로써 주요 의제인 투자와 무역 개방 확대 의지를 과시했다는 해석⁹⁾

8) 중국 관영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21개 성·시·자치구가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의 업무보고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건의 등 공개자료에서 자유무역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기존에 자유무역구가 설치된 4개 지역과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지린(吉林), 산시(山西), 칭하이(青海), 시짱(西藏) 등 6개 지역을 빼고는 전부 자유무역구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유무역구 비준 심사에 중국이 개혁 심화, 개방 확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연합뉴스, 2016, 中 자유무역구 추가설립에 21개 지역 각축, 2월 2일.

9)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유무역구 신설 발표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것은 중국 경제를 글로벌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 중국 당국이 당초 5개 안팎으로 예상됐던 추가 설치 지역을 7개로 확대한 데는 시진핑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사업이 부진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 경제 둔화로 일대일로의 중추 지역인 중서부 경제가 좀처럼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 조성되는 자유무역구는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조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육상 실크로드 허브 구축과 서부 대개발 발판 마련의 의미를 강조¹⁰⁾

○ 기존의 4개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서 다량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창업 및 혁신 이끌어 내고자 함

- 이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한 지는 3년,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은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4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과감한 시도들을 진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대중창업을 촉진시켰다고 평가¹¹⁾

지적.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 Seven more provinces to join China's free-trade zone club, bringing total to 11, September 01.

10) 신화사(新華社), 2016, 新增7個自貿試驗區內陸省份佔5個, 9월 1일.

11) 중국은 언론을 통해서 “G20 주최측으로서 중국은 개방경제 선도측면에서 아주 큰 존재감을 보였음. 자유무역시범구 범위의 확대는 기업들의 국제무역투자 참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보다 편리하고 빠른 유통절차를 배치시킬 것임. 이 외에도 신형 산업상품과 교역방식의 혁신에서 비롯된 유연한 시스템으로 자유무역시범구는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전략연구소 대국관계부실장 중페이팅(鐘飛騰)”하고 있음. 또한 “시험 시행, 총괄, 확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의 중요 원칙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음. 신설된 7개 자유무역시범구는 장차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제도 혁신의 핵심을 관철하고, 국제무역규칙의 높은 표준과 연결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을 형성해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추진해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라고 강조.

2. 7개 新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특징

□ 랴오닝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시장 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 동북 옛 공업기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대외개방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
- 자유무역시범구가 시작된 후, 빠른 상품통관과 관세 감세 외에도, 제도적 수출은 대량의 새로운 경제운영 모델, 관념, 시장규칙,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건설 촉진을 야기할 것이고, 특히 공공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장차 일반 시민들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랴오닝성의 자유무역시범구는 다롄 주위로 펼쳐져 있는데, 다롄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은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진행하고, 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대중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동시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제도 혁신의 새로운 핵심을 관철하여, 현재 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내용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규칙의 높은 표준과 연결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허난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부를 연결하는 현대적인 교통시스템과 물류시스템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일대일로로 탄생되는 현대적인 종합 교통허브 서비스를 구축을 목표
- 허난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역범위는 정저우(鄭州) 구역, 카이펑(開封) 구역과 뤼양(洛陽)구역 등 3곳으로 구분, 3구역은 각각 다른 중점기능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뤼양 구역은 뤼양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뤼양공업단지, 뤼양국가대학과학기술원, 쯐시대공장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전통설비 제조, 신재료, 스마트설비제조 등 제조업 및 연구개발설계, 정보기술서비스, 실험검사인증, 문화창조 등 2·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정저우 구역은 공항 40.6km², 경제개발구역 28.1km², 정둥 금융집중구역 13.2km²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국제전자상거래, 현대물류 등 유통허브 기능을 발휘하는 산업 및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카이펑 구역은 카이펑 도농일체화 시범구역 및 경제기술개발구역 내에 위치, 주요 발전 분야로는 문화여행, 창조디자인, 문화미디어, 영상방송, 문예공연, 문화박람회 및 예술품 교역 등의 문화산업이 있음

□ 후베이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중부지역의 순차적인 산업 전환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기지 건설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중부굴기 전략 실행 및 장강경제권 건설 추진의 시범 효과를 증대
- 이전의 신청 방안에 근거하면 후베이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우한(武漢), 이창(宜昌), 상양(襄陽)의 신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약 120km²의 면적에 달함
- 그러나 국가의 정식 결재문서 발부 이후, 후베이성은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수정해 차차레 국가 상부에 보고할 예정

□ 저장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저장성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저우산(舟山)에 위치
-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건설 모색'에 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대종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대종상품의 글로벌 공급 능력 향상을 목표

- 저장 저우산 군도 신개발지구 발전연구원 원장 리잔(李湛)은 무역의 자유화부터 시작해 투자 편리화 방면에서 한 단계 확장했고,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저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해상 연계운송 서비스 센터와 항만산업, 석유화학 기지 건설 등을 포함해 이후의 북쪽 판로는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하고, 보다 좋은 지리적 우세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¹²⁾

□ 쓰촨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 증대 및 내륙 개방전략 지지대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내륙 개방형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고 내륙과 연해 및 국경지역의 동반 협동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국가 ‘일대일로’ 전략 중, 청두(成都)는 내륙개방형 경제중심지로 지정
-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조건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청두가 그 핵심 주체라는 것은 분명하며, 면적은 2차 자유무역시범구 면적을 참고했을 때 다소 차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청두시 상무위원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텐푸(天府) 신개발지구는 국가급 개발지역이며 상무부의 요구에 의거해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신개발지구 및 개발단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혁신의 핵심을 관철시킬 것임¹³⁾
- 이에 따라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텐푸신개발지구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요지는 3~5년간의 노력을 통해 서부 대개발을 주도하는 전환구역, ‘일대일로’를 융합한 국제설비제조와 생산능력 협력구역,

12) 浙江舟山群島新區發展研究院(<http://www.zsins.org/>) 참조.

13) 신화사(新華社), 2016, 自貿試驗區再擴容為改革創探索路徑, 9월 4일.

중국과 UN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개방시범구역, 국제투자무역규칙과 연결되는 압력실험구역, 전 세계 혁신 요소를 종합한 창업 집중구역, 내륙개방형 경제 신시스템이 구축된 종합 개혁구역 등을 목표로 함

□ 충칭시

○ 추진 목표와 특징

- 충칭 전략거점 및 연결점 효과 발휘,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 증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요를 실현시킴으로써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를 완벽하게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 받고 있음
- 서부지역의 관문도시로 '일대일로', 장강경제권을 비롯한 주요 발전전략의 중요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고 남부와 북부를 연결시키며 몇몇 대전략과 연동되는 중요 허브지역
- 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을 통해 메커니즘의 혁신을 장려하고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파워의 발전과 정부의 경제관리방식 전환을 인도해 충칭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산시성

○ 추진 목표와 특징

- 서부대개발에 대한 '일대일로'의 견인 효과를 유도하고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를 증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내륙형 개혁 개방의 새로운 중심지를 구축하고 내륙과 일대일로 부근의 국가간 경제협력 및 인문 교류의 새로운 모델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산시성 정부 인사는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이후 외국인투자의 시장진입 후 줄곧 등기제를 실시했는데, 장차 외국인투자 대상 심사비 준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할 예정
- 네거티브 리스트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면,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공상관리부서에 바로 등록접수 하면 되는데, 산시성 상무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7월 산시성 실질이용외자금액은 25억 3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7.6% 증가

- 총체적으로 보면, 산시성이 이용한 외자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국가 경제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시성은 외자를 유인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음
- 산시 자유무역시범구의 승인 허가는 산시성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¹⁴⁾

[그림 3] 중국의 신(新) 자유무역시험구



자료 : 서울경제, 中 자유무역구 7곳 추가, 2016.9.1.

14) 신화사(新華社), 2016, 擴大自貿試驗區試點範圍啟動改革開放探索新航程, 8월 31일.

IV. 한국의 협력방안

1. 시사점

□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의 발전과 평가

○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의 발전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
-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 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
-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15년 12월 17일 신(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關於加快實施自由貿易區戰略的若干意見)」을 발표
- 이후 2016년 8월 31일 항저우 G20 정상회의 전에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범구를 건설할 것이라 공표

○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의 성과

- ▲유럽 국가와의 FTA 체결, ▲한·중 FTA체결, ▲중국·호주 FTA 체결, ▲중국·ASEAN FTA 업그레이드 버전 체결,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등 거론할 수 있음
- 중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선진국과의 양자간 협정,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협정, 중국 내부의 자유무역구 등 4가지 유형으로, 2015년 말 기준 22개 국가 및 지역을 아우르는 총 14곳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

○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의 가속화 이유

-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고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중국경제는 TPP, 생산능력 과잉, 신성장 동력의 부재 등 국내외 경제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구 전략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

○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현재 초기 발전단계를 거쳐 중기 발전단계 시작

- 그동안 자유무역구의 영향력 확대, 전문성 배양, 시스템 조정 등의 보완이 일정하게 진행된 시점에서 국내 4대 자유무역시범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7개 신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확정
- 이는 자유무역시범구의 전략적 배치 일환으로 연해지역을 탈피한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 되는 시점에서 지역별 취업 및 창업 촉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
-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선정된 7개의 성이 각각의 강점과 특색이 있고, 국가전략 구도와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제3차 선정도시 중 경제가 더 발달한 연해도시도 있었지만, 최후에 선택된 도시 다수가 중서부 내륙의 다양한 도시, 이는 국가 개혁·개방 정세와 지역 균형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에 부합
- 따라서 제3차 자유무역구 선정은 중국의 자유무역구가 이미 연해에서 내륙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서부 지역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진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이는 중국 자유무역구 3.0시대 개막은 적합하다는 것으로 개혁·개방 작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계획
- 이번 자유무역시범구는 성급 행정구역을 자유무역구 전략 추진제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과정 중 시급행정구역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지만, 각종 개혁·개방 조치의 실현구역 및 시범시행 추진을 위한 성급 조정권한을 부여, 이는 자유무역구 시범구의 실행이 중국의 실정과 부합하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주는 대목
- 지속적인 세계 무역 부진과 국내 전통산업의 침체 아래,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는 침체 요소의 방패막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임

- 공급측 개혁 아래,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는 외자 유인과 이용에 유리하고, 국제 유동자본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및 공업 요소 가격 차이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며 국내·국외시장의 생산수요와 소비수요의 상호적응을 추진시킬 것으로 기대

□ 일대일로와 자유무역구 상관 관계

○ 일대일로 전략과 자유무역구 연계 발전

- 지난 2013년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발전 계획 일대일로, ▲‘일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 ▲‘일로’ 동남아, 서남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실크로드, 중국이 유라시아 육로와 바닷길을 이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
- 일대일로의 핵심을 물류에 맞춰서 본다면 중국이 대륙 전역에 걸쳐 이번에 신규로 조성된 자유무역시험구 7곳은 교통인프라 및 물류 거점 확보,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대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 중국은 3년 전인 지난 2013년 9월 상하이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 하에 이듬해인 2014년 광둥·푸젠·텐진 3곳에 잇달아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조성
- 자유무역구로 지정된 곳은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고 무역 및 통관이 간소화돼 국가 간 투자와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그동안 4곳의 자유무역시험구는 활발한 외자 유치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과 함께 신흥·첨단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왔음
- 그러나 이번에 대폭 확대하기로 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위한 허브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

○ 현재 중국은 철저하게 일대일로 구상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물류산업 및 연계산업 간 유기적이며 통합된 전략을 시행 중

-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공 실크로드를 구축, 서남아·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내 60여개국 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구상하는 만큼 중국 물류전략은 ▲서부지역 공항 및 항만·도로 등 인프라 확충, ▲칭다오 및 청두와 같은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육성, ▲유럽연합(EU)과의 항공산업 파트너십 체결과 철도협력 강화로 국제운송 시장점유 강화 등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성과를 내고 있음

- 세계 10대 항만 중 2004년 3개(홍콩, 상하이, 선전)에서 2014년에는 7개(상하이, 선전, 홍콩, 닝보-저우산, 칭다오, 광저우, 톈진)로 급증, 중국 이외의 항만으로는 싱가포르와 부산, 두바이 뿐임¹⁵⁾

- 중국 정부의 물류산업 거대화 추진 배경은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으나 생산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물류산업은 선진국 업체에게 밀려 무역-해운-조선으로 연결되는 국가 경쟁력 향상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

※ 이에 반해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 세계 5대 항만에 올라있는 부산항은 중국에 밀려 화물 처리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번 한진해운 사태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수송 순위는 지난해 세계 3위로 전년대비 한 단계 내려앉았으며, 러시아·중국 등과 연결하겠다는 철도망 확장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15) 중국의 물류산업 구조조정은 일대일로 개시 후 박차를 가하고 있음. 실제 지난 2월 1일 중국 1,2위 선사인 중국원양운수(COSCO)그룹과 중국해운그룹(CSCL)의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었음. 합병법인 ‘중국원양해운’의 운용 선단 규모는 1250척에 달함. 운송량은 8500만DWT(재화중량톤수 선박이 실제 실을 수 있는 중량)을 초과해 세계 1위 해운사로 뛰어올랐음. 보유 컨테이너선은 288척으로 158만 3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규모는 세계 4위, 중국 내 1위임. 드라이벌크선은 355척으로 운송량은 3040만DWT, 세계 1위를 차지함. 부두 운용 규모 면에서도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이 세계 2위, 국내 1위로 올라서게 됨.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3,4위 선사인 시노트렌스&CSC와 중국초상국(China Merchants)그룹의 합병안도 승인·추진중임. 시노트렌스 & CSC가 중국초상국그룹에 합병되는 방식임. 지난해 말부터 중국 항공사 합병 소식도 들리고 있음. 중국 정부가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간 항공화물 혹은 여객 사업 부문만 통합하거나 혹은 3개 항공사 중 최소 2개를 합병한다는 것임.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해운업 구조조정에 이어 항공업도 규모의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임

2. 우리의 대응방안

□ 한·중 FTA 체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등 양국 지역 간 경제협력·산업별 진출방안 논의 확대

○ 인천의 對중국 자유무역구 협력방안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중 FTA 경제협력 챗터에서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명문화
- 인천시와 웨이하이(威海)는 2015년 3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방경제협력 협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
- 주요하게는 관광분야, 투자분야, 무역·산업분야, 첨단산업 R&D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¹⁶⁾

○ 부산의 對중국 자유무역구 협력방안

-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도, 풍부한 우수 인력자원, 해운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우수한 의료·게임·교육 인프라, 상대적으로 낮은 항만임대료 등을 강점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
-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 카보타지(Cabotage)의 허용과 선박 관련 금융, 보험, 중개, 컨설팅, 해사법률 등과 같은 선박관련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 정책으로 꼽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는 원양운송업, 국제선박관리업 및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규제 완화 분야로 분석
- 부산시는 2006년부터 미래성장 동력으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게임산업 개방으로 글로벌 게임업체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부산이 지향하는 게임산업 도시 조성에 부정적 영향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분석

16) 유다형·김희경, 2015,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 한·중 FTA / 경제·산업, 인천발전연구원.

- 한류 열풍과 겹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의료분야에 대하여, 부산도를 겨냥한 ‘의료관광 벨트’, ‘체류형 의료관광’, ‘의료 패키지상품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의료기관 설립을 검토
-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색을 위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중외합자 경영여행사 설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부산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무역 기반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¹⁷⁾

○ 새만금의 對중국 자유무역구 협력방안

- 개발 가능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고, One-Stop 통관절차를 도입하여 글로벌 경협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수립
-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 및 가공 수출의 허브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2015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서 새만금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2015년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제시
- 특히 규제특례제도는 새만금에서의 성과 여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 다른 특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새만금에서의 시범적 운영 방식과 범위, 내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은 8개 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고용, 출입국, 통관, 시험·인증, 금융, 입지, 개발, 환경)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5년 6월 22일에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국내 단독으로 선정되어 조성방안을 구상중이며,

17) 장정재, 2015, 중국 자유무역구 2.0 시대 개막, 부산의 대응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중국측은 중·한 산업단지를 엔타이, 옌청, 광둥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한·중 간 상호호혜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협력도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

○ 제주의 對중국 자유무역구 협력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 발전에 적합한 내용의 규제특례를 마련 할 수 있음¹⁸⁾
- 중국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 상하이 보세구에 ▲한·중 공동 제주투자기금 조성, ▲제주 관광·뷰티·의료 투자 상품 개발, ▲자유대환 및 위안화플랫폼, ▲한·중·일 물류 시스템 연결, ▲제주 기업의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진출 시범역량사업 실시 등을 도모해 볼 수 있음
 - 상하이 루자쭈이금융단지, 진차오개발구, 창장하이테크원구 등에 ▲IT 기반 금융 플랫폼 구축, ▲제주 식품·화장품 해외직구 통로 구축을 고려 윈스탑 통관, 국경간 전자결제, SPS 상호인정, 화물차 상륙-통행 허가를 구축해 볼 수 있음
 - 광둥에는 ▲IT 기반 금융플랫폼 구축, ▲제주 식품·화장품 해외직구 통로 구축, ▲광둥-제주 간 여행·레저 상품 다양화, ▲IT 기업의 광둥-제주 공동투자 촉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텐진에는 ▲텐진-제주 항공·항로·크루즈노선 개발, ▲위안화결제와 태환 자유화를 통한 위안화 자금의 재투자 그리고 푸젠는 ▲푸저우-타이완-제주의 첨단기술 협력, ▲핑탄-제주 간 문화콘텐츠 산업 연계, ▲핑탄-제주 간 여행·레저 상품 개발, ▲샤먼-타이완-제주 무역 항로 개발 등을 우선해 볼 수 있음¹⁹⁾

□ 제언

- 한국은 4대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하고 7개 신규 자유무역시범구와 직접적인 경제협력 시범사업들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함
- 중국은 자유무역구 3.0시대 개막으로 중국의 총 11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 기존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를 바탕으로 7개 신규 자유무역시험구와

18) 김명아, 2015, 일대일로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한중관계연구원.

19) 김명아, 2015,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연동하여 경제협력은 더 긴밀하게 움직일 것임, 이는 일대일로 국가전략과 맞물려 움직이게 되어있음

- 한국의 지자체들은 상호 협력으로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호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경쟁적이고 중복적인 산업과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자유무역구 추가 설치에 중국 경제의 거점화가 한국 기업들을 흡수하는 효과는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러브콜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10년내 활성화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한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한국의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6,968천㎡), 광양항(8,879천㎡), 인천항(2,405천㎡), 평택·당진항(1,429천㎡), 포항항(709천㎡) 등 총 5개항만으로 면적은 20,391천㎡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어 물류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원 받을 수 있음
-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확대와 아시아 경제협력의 확장 정책을 위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방형 항만보세구 자유무역항과 지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특히 유라시아 경제라인 환경 조성과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항만보세구 수출입허브항만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중 FTA와 자유무역구는 우리의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 경쟁국에 비해 중국과의 FTA를 선점한 만큼 한국 기업에 한·중 FTA와 자유무역구의 이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각 자유무역구의 세부 정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

참고문헌

- 김명아 (2015). “일대일로와 한·중 FTA가 새만금사업에 주는 법제적 시사점”.
한중관계연구, 1(2), 59-86. 한중관계연구원.
- 김명아 (2015).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명아 외 (2014).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찬욱 (2015).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의 진출 지원방안』. 서울: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유다형·김희경 (2015).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한·중 FTA / 경제·
산업”. 인천발전연구원.
- 장정재 (2015). “중국 자유무역구 2.0 시대 개막, 부산의 대응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2015). “중국 4대 자유무역시험구 추진과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 KIEP 북경사무소 (2015). “중국의 자유무역구 확대 배경 및 평가”(북경사무소 브리핑,
Vol.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TRA 북경지부 (2015). “텐진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globalwindow-경제·무역동향(<http://www.globalwindow.org>)).
- 新華社 (2016). 2016中國自由貿易試驗區發展報告, 新華社中國經濟信息社.
- 王燕培·王慧娟 (2016). 我國保稅區與世界自由貿易區比較研究, 第7期.
- 郭曉合·葉修群 (2016). 從中國入世到上海自貿區擴區的產業連鎖效應 經濟與管理研究,
Vol.37, No.8.
- 邢厚媛 (2014). 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與中國香港·新加坡自由港政策比較及借
鑒研究, 09期, 科學發展.
- 王海梅 (2014). 上海自貿區對周邊城市的影響及對策, 常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No.3.
- 胡凤乔·李金珊 (2016). 从自由港代际演化看“一带一路”倡议下的第四代自由港发
展趋势, 社会科学家 No.5.
- 財政部, 海關總署, 國家稅務總局. 關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有關進口稅收
政策的通知(財關稅[2013]75號).
- 國務院關於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國發[2013]38號).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中, 제2의 개혁개방 선언”.(2013.9.30.). 동아일보, A17.
“일대일로, 중국은 무엇을 얻나”.(2015.3.30.). 아주경제.
“中 자유무역구 추가설립에 21개 지역 각축”.(2016.2.2.). 연합뉴스.
“擴大自貿試驗區試點範圍啟動改革開放探索新航程”.(2016.8.31.). 신화사(新華社).
“新增7個自貿試驗區 內陸省份佔5個”.(2016.9.1.). 신화사(新華社).
“自貿試驗區再擴容為改革創探索路徑”.(2016.9.4.). 신화사(新華社).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로 물류 경쟁력 키우는 중국” (2016.9.6.).
중국망(<http://www.cmnews.kr>).
Impact of China’s free trade zones. (August 2015). *Financier Worldwide Magazine*.
China to Set More Free-Trade Zones. (2015.3.24.). *The Wall Street Journal*.
Seven more provinces to join China’s free-trade zone club, bringing total to 11.
(2016.9.1.). *South China Morning Post*.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gdftz.gov.cn>).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shftz.gov.cn>).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tjftz.gov.cn>).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http://www.china-fjftz.gov.cn/>).